

통권 제 172호

2562
2018

02

불교이야기
고성제 3



마중물
오늘 하루
내 삶
살살이



심선성취
관계
關係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

무상無相

들어난 선과 악의 상별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회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명예보다도
진리의 복덕성이 더욱 더 크며
마음이 넓고 크며 둥글고 차면
일체가 광대하고 원만하리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울림 _ 44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적멸
_ 법상



생활 속 식물이야기 _ 56

내게 희망을 보여 줘
_ 이태용



설화 속으로 _ 64

도척이 바위
_ 보현

2562
2018

02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2 십선성취

36 마음의 등불

39 산책

40 애견 칼럼

44 울림

48 씨앗한알

50 법향기 속으로

54 디딤돌

56 생활 속 식물이야기

60 거꾸로 보기

64 설화 속으로

68 독자 코너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고성제3 _ 화령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 _ 법정

염심染心을 가진 자가 주는 음식을 받지 말라 _ 법경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 _ 이옥경

소문所聞 _ 우연

관계關係 _ 덕현

구태여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할 것 뭐 있겠나? _ 이진상

명의 _ 김대곤

올바른 급식방법 _ 권도형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적멸 _ 법상

걱정은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다 _ 정호승

용맹정진은 행복의 씨앗 _ 법수연

아름다운 사람들 _ 지현

내게 희망을 보여 줘 _ 이태용

우리에게겐 싫어할 이유와 권리가 있다2 _ 박현희

도척이 바위 _ 보현

내가 가장 예뻐할 때 _ 강금순

그대의 한숨과 함께 _ 법일

삼귀의三歸依 _ 김재동

무진장無盡藏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처음 하듯이

법륜 스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에도
처음 대하듯이 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처음 구경해보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인생도 그렇게 해보세요.
신기한 마음으로 인생에 임해보세요.
어떤 일이든 새로운 마음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처음 하듯이.

- 「즉문즉설(3) 행복하기 행복전하기」

고성제3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사고四苦와 팔고八苦

불교에서는 생노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과 함께 원증회고怨憎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취온고五取蘊苦의 네 가지 괴로움을 더하여 팔고八苦가 있다고 합니다.

원증회고怨憎會苦는 미워하는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데서 오는 괴로움으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애별리고



愛別離苦와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의 고입니다. 인간이 혼자서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한은 이러한 두 가지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생활의 갈등은 대부분이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범부인 한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바탕에 두고 현실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는 고통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쉬운 예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싫은 사람과 매일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든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둘 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상사라도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싫다는 내색도 못하고 만나기는 매일 만나야 하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도 죽음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애별리고와 원증회고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인 고고보다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인 괴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고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구부득고(求不得苦)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재산, 명예, 권력, 사랑 등을 간절히 바라지만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생활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뜻한 바 대로 가져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폭행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차를 마련하면 기사까지 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세 살다가 스무 평짜리 집이라도 장만하면 기뻐하는 것도 잠시 뿐이고 이제는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른 평짜리 집을 장만

할 때까지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끊임 없이 가지려고 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미혹한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도 육체적 고통인 고고보다도 정신적 고통인 괴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부딪쳐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함께 인간인 이상은 피할 수 없는 괴로움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이처럼 고통을 강조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부닥치는 지금의 현실을 떠난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문제 삼아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라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노·병·사의 고통과 함께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는 인간인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주로 고고와 괴고에 해당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체가 고’라는 한 마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체가 고라는 것은 윤회계의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의 모든 행이 고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행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요컨대 오취온은 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현상적 존재

로서의 오온이 그대로 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온과 오취온^{五取蘊}에 대해서입니다. 《잡아함경》에서는 오온과 오취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온이 곧 오취온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오온과 오취온이 다른 것도 아니다. 오온에 욕탐이 있으면 이것이 곧 오취온이다.

말하자면, 색·수·상·행·식은 인간을 이루는 요소이지만, 그것에 욕탐이 있을 때는 오취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오온이 고가 아니라 오취온이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오온을 지니고 계셨지만 욕탐이 없기 때문에 오온이 고의 원인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욕탐이 있는 중생의 오온을 특히 오취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고라는 의미입니다. 오취온고^{五取蘊苦} 혹은 오음성고^{五盛盛苦}라는 것은 곧 욕탐이 있는 오온이 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라고 하여도 실은 앞의 생로병사,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의 7가지 고가 모두 이 오취온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취온고는 일체개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상적 존재로서의 오온이 범부에 의하여 집착되고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 마음 견잡을 수 없이 번덕스러워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면서 날아간다
이 마음 다스리기 너무 어렵나니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마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 범구경 -

오늘 하루 내 살림살이

법정

1932~2010
조계종 스님
길상사 창건
수필가

한 열흘 남짓 떠돌아다니면서 끼니마다 해 놓은 밥 얻어먹다가 돌아오니 끓여 먹는 일이 새삼스럽네. 버릇이란 고약해서 남이 해주어 버릇하면 자신의 능력을 접어둔 채 의존하려는 타성이 생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이 타성에 속지 말아야 한다. 타성에 길이 들면 자주적인 능력을 잃고 게으름의 늪에 갇힌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막연하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 존재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은 오늘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가 한 번 되돌아보자.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방이 많이 식었다. 예정보다 30분쯤 늦게

일어났다. 지난밤 자다가 깨어 허균이 엮은 <한정록(恨情錄)- 숨어 사는 즐거움>을 다시 읽었다. 옛사람들의 자취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배울 바가 참으로 많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를 배울 수 있다. 가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는 일이 풍류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면 냉수를 두 컵 마신다. 공복에 마시는 냉수, 즉 찬물은 목을 축일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씻어준다. 언젠가, 스님의 건강 비결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냉수 많이 마시고 많이 걷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 살아있는 생수를 멀리한 채 끓여서 죽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비롯해서 각종 음료들은 살아 있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즐겨 마실 것이 못된다. 목이 마를 때는 수시로 생수를 마신다.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 발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지하면서 건강을 잃어간다. 제 발로 걷는다는 것은 곧 땅에 의지해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걸어야 대지에 뿌리를 둔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땅을 등지고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물든 잎들을 내다보고 있다. 지고 남은 잎들도 머지않아 가지를 떠나갈 것이다. 그 빈가지에는 또 겨울 나그네인 눈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아침 식탁에서 바흐의 판타지아와 푸가를 들었다. 며칠 전 취리히에 들렀을 때였다. 그곳 성모성당에 샤갈의 마지막 작품이 스테인드글라스로 남아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당 한쪽에서 때마침 파이프 오르간을 조율하던 참이었다. 조율이 끝나

고 조율사는 음악을 한 곡 들려주었다. 성당에서 듣는 파이프 오르간의 그 장엄한 소리는 내 속에 낀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성당에서 기념으로 산 CD를 오늘 아침 들었다. 건전지로 돌아가는 조그만 ‘소리통’이라 그날의 장엄한 울림에 건줄 수는 없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은 느슨한 감성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었다. 그리고 자동차로 멀고 지루한 길을 달릴 때는 이따금 야니의 역동적이면서도 감미로운 가락이 쌓인 피로를 씻어준다.

또 무엇을 먹는가. 아침은 대개 빵 한쪽에 차 한 잔. 바나나와 요구르트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한 개씩 곁들이기도 한다. 점심과 저녁을 위해 미리 쌀과 잡곡을 물에 불려 둔다. 밖에 나갔다가 오두막에 들어올 때는 햇반의 간단하고 편리함에 기댄다.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먹는 일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대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과식 때문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먹는 것만으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안팎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생활 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평생 자신을 위해 수고해 주는 소화기를 너무 혹사하지 말고 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출출한 공복 상태일 때 정신은 가장 투명하고 평온하다.

말은 들을 대상이 있어야 한다. 입을 닫은 침묵을 통해서 말의 의미가 목젢에 차오른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간단명료하다. 그밖에는 습관적인 또 하나의 소음일 것이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나무나 새, 바위나 곤충 또는 구름이나 바람한테 혼잣말을 할 때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한 줄기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무심하다. 이런 무심한 소리에는 그 삶의 향기가 배어 있을 듯 싶다.

그리고 오늘 아침나절 나는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아침 기온이 영상 2도. 방이 식어 군불을 한 부엌 지켰고 집 뒤 나뭇간 사이에 있는 추녀 끝 물받이 흙통에 쌓인 낙엽을 긁어냈다. 눈이 쌓여 얼어붙으면 물받이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해도 내가 할 일이므로 그때그때 눈에 떨 때마다 즉시 해치워야 한다. 이 다음으로 미루면 무슨 일이든지 미루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이다음 일을 누가 아는가. 그때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그곳에 그렇게 존재한다. 누가 나대신 그 일을 거들어준다면 내 몫의 삶이 그 만큼 새어나간다. 뜰에 뒹구는 가랑잎은 바람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실존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형성하고 내 업을 이룬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이 쌓은 업이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당신 자신을 만들어간다. 명심하라. 🙏

-「홀로 사는 즐거움」-

염심^{염心}을 가진 자가 주는 음식을 받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형정한계을 _ 33

선물과 뇌물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독 정^情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情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다정다감^{多情多感}한 사람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 무엇이든지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즐거워한다.

사람의 정^情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이 따뜻하면 정^情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음이 차가우면 무정^{無情}해진다. 정^情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곧잘 길으로 드러난다. 콩 한 쪽도 나눠먹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눈다.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듯 선물은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다. 주고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다.

그러나 여기에 의도가 끼어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다. 의도가 있는 선물은 먼저 아부에서 비롯된다. 또 청탁에 의해서 선물이 전해지기도 한다. 선물로 가장하여 의도가 있는 선물은 좋게 볼 수 없으며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이것은 분명 뇌물이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주고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고가^{高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선물은 사은^{師恩}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은 효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선물은 공경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뇌물^{賄物}은 ‘재화를 준다’는 뜻이다. 재화란 재물과 물품을 말한다. 즉 금품^{金品}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금과 물품을 주는 것은 거의 뇌물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다. 정치인들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1억을 받았다’, ‘청탁성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와 같이 뇌물은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으로 통한다. 대가를 바라는 청탁의 금품이다.

이와 달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로맨틱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른 의도를 가진 선물은 아름다울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흑심^{黑心}이라고 한다. 흑심은 뇌물 못지않게 나쁘다.

불교에서는 흑심을 품고 주는 물건을 받지 말라고 한다. 그 흑심을 율장에서는 염심^{染心}, 염애심^{染愛心}이라고 한다. 이는 이성^{異性}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염심을 가진 자가 주는 음식을 받지 말라는 게 있다. 이를 염심수식계^{染心受食戒}라 한다.

비구니의 승잔죄 : 염심수식계^{染心受食戒}

‘염심을 가진 자의 음식을 받지 말라’는 염심수식계^{染心受食戒}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음식을 받는 자가 염심을 가지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은 ‘염심을 가진 자가 주는 음식을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음식을 받는 사람이 염심을 가지고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음식을 주는 사람의 염심이 문제라는 것이다.

염심을 가진 자의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단지 받는 사람도 염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왜 염심을 가진 자의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음식을 주는 자의 마음에 흑심이 있기 때문이다. 흑심 있는 자의 공양은 바른 공양이 아니며 선한 보시라 할 수 없다.

염심수식계가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에 흉년이 들어 결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모든 비구니들은 빈 바루로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제사난다라는 비구니 혼자만은 음식은 물론이고 요긴한 물건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그 비구니의 인품이 출중하여 항상 대중들로부터 공경을 받아 왔기에, 어떤 상점 주인이 이 비구니를 흠모하여 많은 음식을 수차례에 걸쳐서 주었던 것이다. 상점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 비구니에게 준 것이 재산으로 치면 상당하다. 그 돈이면 여인을 사고도 남을텐데…’, 어떻게든 본전은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때 마침 제사난다 비구니가 결식을 왔다. 상점 주인은 저돌적으로 비구니를 껴안고 겁탈하려 하였다. 이 때 비구니가 반항하면서 큰 소리



를 질러 근처 상인들이 몰려왔다. 상점 주인이 비구니에게 되물었다.

“스님은 이제까지 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알긴 알았으나, 제가 비구니인데 저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대답했다. 상점 주인이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고함은 지르지 말아야지요.”하고 원망하였다.

이를 전해 듣고 부처님께서 제사난다 비구니를 불러 확인하신 뒤에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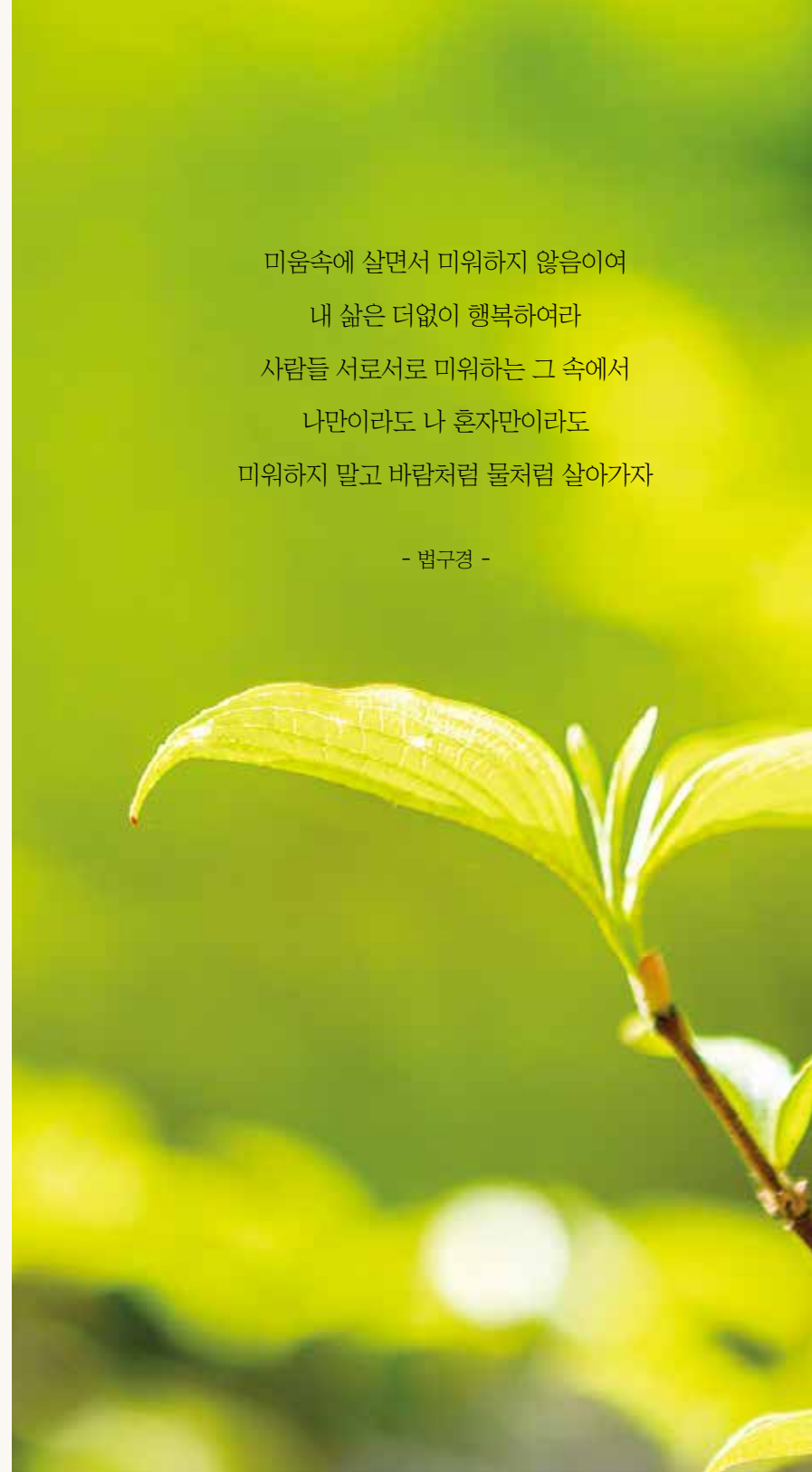
“만약 비구니가 염심을 가진 남자인줄 알면서 스스로 염심을 가지고 음식과 물건을 받는다면 이는 승잔죄가 된다”고 하셨다.

부정_{不正}한 것을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부정을 알면서 이를 받는다면, 사회의 법률과 윤리적인 규범 뿐만 아니라 신앙과 진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_{不正}은 항상 주고받는 사람끼리 서로 묵인하고 내통하는 데서 싹튼다. ▲



미움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앎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 범구경 -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게양대에 태극기가 올라갔다. 두 눈 가득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태극기에 경의를 표한 황영조 선수는 시상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관중석으로 달려가 비운의 마라토너 손기정 옹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다. 황영조를 포옹한 손기정 옹의 눈도 젖어 있었다.

‘기테이 손^{基顯}孫’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의 일본식 이름이었다. 가슴에 일장기를 단 채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올라가고 애국가 대신 일본의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민족의 한’이 56년 만에야 풀리는 장쾌한 순간이었다.

1960년 로마올림픽 무대를 제패한 에티오피아 ‘맨발의 마라토너’ 비킬라 아베베를 세계스포츠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우승으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196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그가 좌절 대신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1970년 노르웨이 25km 휠체어 눈썰매크로스컨트리대회에서 금메달을 땀고, 10km 레이스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패럴림픽의 전신인 스톡홀름 맨드빌 휠체어게임에 양궁과 탁구 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 “다리로서는 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겐 두 팔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아베베의 도전은 금메달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는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금 23개, 은 3개, 동 2개, 총 28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어린 시절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8관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먹고 자고 수영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이클

펠프스를 120년 올림픽 역사 최고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그의 전력투구였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미국의 육상 선수 레이 유리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수는 총 10개다. 휠체어가 싫어서 육상을 시작했다는 그가 제자리멀리뛰기에서 세운 세계 기록 3.48m는 이 종목이 1930년대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될 때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릴레이로 여자 육상 3관왕에 오른 미국의 흑인 선수 윌마 루돌프 역시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11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브라질의 반데레레이 리마 선수. 경기 중 아일랜드 출신 종말론 추종자의 난입으로 넘어져 선두를 내주고 말았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다.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지켰다. 참가했다는 자체가 즐거웠다. 나를 밀친 사람도 용서한다.”라는 그의 올림픽 정신을 높이 산 IOC는 근대 올림픽 창시자의 이름을 딴 피에르 쿠베르탱 메달을 수여했다.

AP통신이 아테네올림픽 최고의 명승부로 선정한 한국 여자 핸드볼팀의 경기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한 선수들이 만들어낸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 못지않은 진한 감동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산 역사인 이규혁 선수는 1994년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까지 여섯 번의 도전에서 여섯 번의 고배를 마셨다. 동계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과 달리 올림픽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던 그를 무관의 영웅이라 부르는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한 길로 달려온 30여 년, 최선을 다 한 그의 스케이팅 인생이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난민팀 선수단이 꾸려져 내전으로 인해 꿈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 경기에서 다리가 뒤엉켜 넘어졌으나 서로를 다독이고 이끌며 어렵사리 완주에 성공한 미국 여자 육상선수 애비 디아고스티노와 뉴질랜드 니키 햄블린은 승부를 뛰어넘은 올림픽 정신으로 패어플레이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앞을 잘 볼 수 없는 알제리의 아브텔라티프 바카 선수는 패럴림픽 남자육상 1,500m에서 비장애인 선수의 금메달 기록인 3분 50초 00보다 1초 71이나 앞선 3분 48초 29로 금메달을 따냈다. 양팔이 절단된 이집트의 탁구선수 이브라힘 하마투는 입에 라켓을 물고 묘기에 가까운 기량을 선보였다. 단식 2경기과 복식 1경기에서 모두 졌지만 그의 경기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큰 감동을 남겼다.

IOC가 러시아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국가 주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개 종목에서 선수 1,000여 명의 도핑 결과를 조작했으며 특히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28명의 도핑 결과를 조작한 데 대한 징계조치다. 1,500만 달러(약 163억 원)의 벌금 부과, 소치올림픽 메달 33개 중 금메달 4개를 포함한 11개 박탈, 문제가 된 러시아 선수 25명의 성적과 기록 삭제 및 올림픽 영구 추방이라는 중징계도 내려졌다. 러시아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IOC가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선수에 한해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기를 달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102개 종목 중 3분의 1에 가까운 32개 종목에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을 보유한 러시아에 대한 징계를 놓고 동계올림픽 흥행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IOC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의 흥행보다는 평화와 친선, 도약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이 먼저다.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멀리-금메달도 좋고 신기록도 값지지만 그 모든 것은 정정당당할 때 더욱 빛난다. 패자의 눈물이 승자의 땀방울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의 팽팽

한 긴장감 속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 있어서다. 경기규칙에 따라 자기를 통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은 위대하다.

이제 곧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타오를 것이다. 3수 끝의 유치나 7년여에 걸친 준비의 지난함은 잠시 묻어 두기로 하자. 이제는 성공개최를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부처님의 넓고 큰 가피 아래,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는 올림픽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리고 3월에 개막할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또 한 번 그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기를.

출가 수행자나 세속인이 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할 팔정도 八正道의 정견(正見(바른 견해))이 올바른 생각과 말, 행위를 이끌어내듯 공명정대한 스포츠 정신이 만들어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아름다운 성공 신화를 기대해 본다. 🏔️





TV를 켜면 짜증부터 난다. 신문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이 온통 사건 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 해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 청문회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언론에서는 청문 대상자의 각종 의혹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 그 중에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 되어 있고, 그것들은 입과 입을 거치면서 풍선처럼 부풀려진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진짜 보다 더

진짜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소문의 통로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더러 숨겨진 진실을 까발려 불온한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가벗겨질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 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다. 악플과 신상 털기가 정도를 넘어 서면서 이를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들도 드물지 않게 생겨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 취하기가 쉽지 않으니 나 역시 침소봉대하는 이들의 대열에 한몫을 거들지 않았다고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다.

나이를 먹어 간다는 뜻일까, 웬지 요즘 들어,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적당히 덮어주고 품어주는 여유가 있던 옛날에 대한 향수가 깊어진다. 문명의 이기가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K아저씨의 웃지 못 할 비화도 속전속결이라는 현대화의 손길이 미치기 전이라 가능했지 싶다.

고향마을 입구 그곳을 사람들은 마굿들이라 불렀다. 지금은 깨끗하게 지어진 현대식 주택과 상가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마굿들의 한쪽에는 공동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은 공동묘지 옆 신작로를 따라 오리^{五里}를 걸어 읍내에 있는 5일장을 보러 다녔다. 할머니는 장이 서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농산물을 이것저것 챙겨서 장으로 나가셨고 저녁 어두움이 내려왔을 때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 오셨다. 그럴 때 마다 공동묘지가 있는 그 길을 걸어오시는 할머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을 하곤 했다.

언젠가, 공동묘지에는 어떤 사람이 묻히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대답은 후손이 없거나 신분을 뒤흔들 수 없는 불쌍한 망자^{亡者}들이 모여지는 곳이라 하였다. 그 후로는 어쩌다가 근처를 지나 갈 때면 웬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어른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은 어린 아이였던 우리에게도 쉬쉬 하면서 전해졌다.

동네 아저씨 한분이 새벽녘 마굿들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묘지 옆 도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등에 업고서 마을로 돌아 왔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도 일 잘하고 착실하기로 소문이 난 K아저씨였다.

발견 당시 K아저씨는 얼굴과 팔 다리 여기저기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고 옷은 온통 흙투성으로 뒤범벅이가 된 상태였다고 했다. 집에 돌아 온 K아저씨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듯 헛소리만 내질렀다.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탓이라며 앞으로가 큰일이라고 수군거렸다.

사고가 있던 날, K아저씨는 집에서 몇 년 간 키워 왔던 암소 한 마리를 읍내의 5일장에 나가 내다 팔았다. 소를 판 뒤 두둑하게 거머쥔 돈으로 장터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는 것.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공동묘지가 있는 마굿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 그 귀신에게 홀려 밤이 새도록 공동묘지 주위를 돌아다녔고 새벽이 밝아 오자 귀신은 사라지고 K아저씨는 묘지 옆 도랑에 처 박혀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것 정도가 소문의 내용이었다. 특이한 것은, 발견 당시 소를 팔았던 뭉치돈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K아저씨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마치 안개가 마을을 잠시 뒤덮었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 또한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가끔 지계를 지고 일을 하러 가는 K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몇 년 후 우리 집은 마을을 떠나 울산으로 이사를 했다. K아저씨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고 한동안 나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K아저씨는 80세가 넘도록 살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K아저씨는 그날 장터에

서 노름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소 판돈을 전부 잃어 버렸단다. 도저히 이실직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귀신을 팔아 자작극을 펼쳤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서나 법원을 알지 못했다. 윗마을에는 향교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 마을에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마을 어른에게 찾아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른의 중재에 따라 조용히 해결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보면, K아저씨가 시대를 잘 타고 났던 셈이다. 요즘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이야기가 아닌가. 먼저 경찰서에 사건 신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TV나 신문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철저히 무시한 채, 특종이라도 잡은 양 서로 먼저 세상에 떠벌리기 위해 급급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해프닝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면서 K아저씨는 상종 못 할 사람이나 조롱거리로 낙인이 찍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는 가난했던 지난 그 시절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자살률은 세계 최대라고 하는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더 많이 생겨나고 법은 더욱 강경해졌음에도 법

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더 공포해지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쟁사회가 만들어 낸 우리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K아저씨의 이야기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전설이 되어 남아있고, 순박한 사람들이 정으로 부비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고부관계, 부부 사이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는 이웃과의 관계, 직장 학교 사회에서의 관계, 친구사이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조건 없는 애정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밖에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나 미움 등을 가족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함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인지 말을 너무 쉽게 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말하겠지만, 되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참으로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이라도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사회 학교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으며, 애매한 관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 같은 곳을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곳을 볼 수도 있습니다. 뜻이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조정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상처 받지 않게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서 만사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그룹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면 서로가 좋은 사이로 남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정이 상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가 나빠질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짐과 심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수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다음에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때는 서로 서먹하지 않으며 부담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이 영원히 악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는 다르다

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제대로 지켜도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설사 형성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악한 사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부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봅니다.

부처님은 제가 하루 중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며, 매일 매일 만나는 분이며, 그 누구보다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비밀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털어 놓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스승이십니다. 부처님께선 불평 한마디 없이 마음 속으로 하는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주십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 마음은 잔잔해 집니다.

부처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自燈明 法燈明 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태여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할 것 뭐 있겠나?

이진상(李震相)
1818~1886
조선 말기의 유학자



구태여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할 것 뭐 있겠나?

人知猶易獨知難
雷雨雲星一念間
如令屋漏常無愧
苦行何須入雪山

인지유이독지난
뇌우운성일념간
여령옥루상무괴
고행하수입설산

남 앞에선 쉬워도 나만 아는 일에선 어려워
한 생각 하는 사이에 별별 생각 다 든다.
방구석에 있을 때에도 떳떳할 수 있다면
구태여 설산에서 고행할 것 뭐 있겠나?

『술학자경(述學自警)』 중 '홀로일 때를 삼가다[謹獨]' 『한주집(寒洲集)』

조선 말기 유학자 이진상은 57세인 1874년 겨울, 책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가야산 아래 있는 만귀정^{晩歸亭}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고요하게 지내면서 전에 배운 학문을 다시 익히고 여러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시는 세상을 초월하고 싶어 자연에서 소요하며 성정을 기르던 이 시기에 지은 작품이다. 「술학자경」 안에는 극기^{克己}, 신사^{愼思}, 신언^{愼言}, 근독^{謹獨}, 독지^{篤志}, 존성^{存誠} 등 스스로를 경계하는 시 26수가 실려 있다.

우리는 흔히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는 남 앞에서는 오히려 문제없기가 쉬워도 자기만 아는 부분에서는 문제없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남 앞에서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조심하게 되지만 나만 아는 곳에서는 ‘아무리면 어떠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워서일 것이다. 특히나 머릿속에서 이는 생각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욱 그렇다. 한 생각 사이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다.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구름도 끼고, 별도 뜨고……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후회하기만 해도 변화가 있으려면 이런저런 핑계, 남들에 대한 원망, 자포자기하는 생각들로 뒤엉켜, 내 마음인데도 남의 마음인 것 마냥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마음 찾는 일을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되는 양 일삼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음의 고향이고, 언제고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또다시 마음을 찾아 마음 밖을 기웃거리니, '나만 아는 일'을 잘 해내기란 참으로 어렵다. 저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도량^{道場}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량이니, 도 닦자고 구태여 설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하승현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명의

김대곤
시인

어실 어실
쭈고 뼈마디 쭈시고 아프면

꿀물 한잔하고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쓰고
땀 한번 흘리라고 했지

이런 저런 생각말고
한숨 폭 자고 나면
괜찮아 질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진단을 내리셨지

세상에 알려진 명의는 아니셨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진단을
내리는 의사이기도 했지

오늘 한번
머리 위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까만 별
한번 세어 볼 일이야

예전에
할머니 말씀처럼 말이야.



올바른 급식방법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반려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밥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참 성장 중인 강아지들의 경우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고, 어느 정도 성장후의 강아지들은 너무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려견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물’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보다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배가 부르다면 먹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성장 중인 강아지들은 활동을 위한 에너지 이외에 성장을 위한 에너지 소모도 많고, 위 용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강아지를 입양해서 사료를 급여 하셨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너무나 허겁지겁 씹지도 않고 먹는 모습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강아지들은 ‘사료를 줬을 때 제한하지 않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많이 먹는 애기들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충분한 사료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성장 과정에서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물^{異物} 섭취 후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성장을 마친 강아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아지들은 ‘동물’이고, ‘본능’에 충실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람처럼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량이 적은 강아지라면 이틀에 한번 소량만 먹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반려견가정의 현실은 사료를 안 먹으면 ‘맛있는 사료’를 찾아 바꿔주고, 그래도 안 먹으면 사료에 맛있는 ‘간식’을 섞어주고, 그래도 사료를 안 먹으면 맛있는 간식만 먹입니다.

‘나는 한끼만 굶어도 배가 고플데, 강아지는 얼마나 배가 고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들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몸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간식 또는 사람음식 앞에서는 그 ‘본능’이 무너지고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음식물 섭취가 없다면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음식물

섭취’를 보호자님께서 꾸준히 도와주시기에 비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댁에서 키우시는 강아지가 사료를 너무 많이 먹는다면, 너무 먹지 않는다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선생님께 진찰을 받은 후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시구요.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 라는 진찰 소견을 받게 된다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사료는 ‘먹는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열 그릇을 먹어도, 이틀동안 반그릇만 먹어도 강아지가 활발하게 잘 뛰어놀고 대변, 소변만 정상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좀 더 건강한 반려견을 키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적멸

법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우리는 살면서 남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내게 욕도 안 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내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내 마음도 통제를 못 하는데 어찌 남들이나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내 입도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 생각도 스스로 통제가 안 되죠? 생각 없이 고요히 명상하려고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들이나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혹은 남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보려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시비를 걸고,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일일이 시비를 거는 내 마음을 오히려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남들의 행위에 시비를 거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나에게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업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녀석이 내게 욕을 하면 화를 내고 반응을 합니다. 저 새파랑게 어린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이게 바로 분별심입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너다 나다, 욕이다 칭찬이다 하며 계속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욕했을 때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은 나에게 욕한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는 그의 말에 휘둘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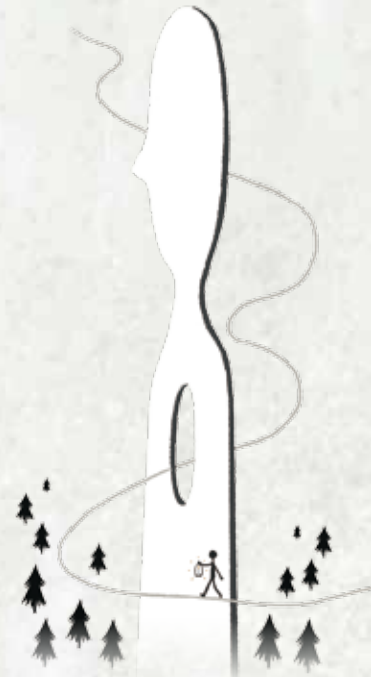
노예의 처지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을 얻어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쥐락펴락할 힘을 실어주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노예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고 나 자신을 두 번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사실 욕 자체는 중립적인 것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다닌다면 그걸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듣고 우리가 괴롭지는 않지요. 이처럼 ‘욕’이라는 하나의 경계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내 스스로 반응하면서 화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겨날지라도, 순간 올라오는分別심을 지켜본 뒤, 잠시 멈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허용하고 해석하지 말아 보세요. 있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원용자재해 집니다. 그 누구와도 시비하며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 안에 굳건히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경계에 일일이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면 괴롭지만 본성대로 둘로 나누지 않고 원용하게 하나로 바라보면 괴로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적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법성계에서는 ‘제법부동본래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인 적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다는 것이지요.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도 이처럼 부동본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 바탕 법성은 원용하여 무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지만 않으면 곧바로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있던 적멸로 돌아갑니다. ▲

- 『날마다 해피엔딩』



걱정은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다

정호승
시인
수필가



미국 콜로라도주 한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400여 년간 열네 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딱정벌레 떼가 나무속을 파 먹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 서도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 먹고고 있지는 않은 지요?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걱정과 근심은 나를 파괴합니다. 일본 왕실의 서자로 태어나 존경받는 큰스님이 된 이큐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일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열어보아라.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보아라.”

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려들은 마침내 이큐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단 한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큐스님은 평소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마디로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걱정하는 일조차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걱정은 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

용맹정진은
행복의 씨앗범수연
화음사 전수

은혜

(종조법설집 p.121)

부모밑에 고행하고 군의의무 난행하면
자기복이 많아지고 출세고난 극복하며
부모덕에 호강하고 군의훈련 기피하면
자기복이 없어지고 세상일에 성공없다.
어릴때에 제가어찌 난행고행 복을알라
빈부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제에
인정으로 양육말고 지성으로 기를지라.
오직다만 정으로서 사랑하고 기른다면
옳은자식 못만들고 결국외도 견게된다.
그러므로 기를때는 부모에게 책임있다.
외도에서 병이오고 외도에서 우환오며
외도에서 지조없고 외도에서 불평온다.

2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49일 불공은 사중수법 중 ‘증익’ 불공 기간입니다. 증익법중에서 특히 ‘자녀들 소원성취’를 위해서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큰 인물로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자식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는 말도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숙제거리입니다. 외아들을 위해 1년 중 상반기 불공에 유독 힘과 정성을 쏟고 있는 보살님의 신행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처님 앞에 몇 년 동안이나 서원을 한 끝에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따끔한 야단을 치기에는 아들이 안쓰럽고, 고집을 꺾으려니 상처받을 아들의 마음이 염려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다루듯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머리가 커질수록 외골수인 성격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새 결혼적령기가 되어 짝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아가씨가 귀하고 귀한 내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받들며 살아줄 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구하는 서원을 계속 하던 중, 문득 ‘이게 아니다. 내 아들이지만 저토록 유난스러운 성질머리를 누가 다 받아주겠느냐, 내 아들이 달라지고 유순한 성격이 되어야 그런 짝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법 시간에 함께 읽은 경전의 문장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제에 부모에게 책임 있다.’ 하지만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시련이 오나, 하는 생각이 들면

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진이 끝나고 전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수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을 배에 품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땠나요?” 35년 전을 돌이켜 생각해봤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아이인지라, 나름 태교에 매진했습니다. 과일도 예쁜 것만, 음식도 맛있고 좋은 것만, 살림도 거의 방치한 채 오직 내가 품고 있는 아이만을 위해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별스럽게 구냐며, 눈썹이 사납다는 말을 대놓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아이만 생각하며 열 달을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전수님이 말 했습니다.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서로 화합하지 못한 가운데 보살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보다 나아져서 배필을 만나고 또 평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전수님은 앞으로 참회불공을 중점적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긴 세월 길러지고, 자리잡아온 성격과 습관이 단박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나 진참회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빨리, 혹은 더디게 나올 수 있겠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참회불공을 3년째 하던 해에, 아들은 효부라고 불리도 모자람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다 들어주는 부모가 능력 있고 훌륭한 걸까요? 비록 구하는 불공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 부처님이 바른 길을 인도하여 참회불공의 길에 이르렀고, 원하는 바까지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참회의 공덕은 변형득도 합

니다. 보살님도, 아들도 동업 인연인지라 모자간의 인연이 된 것인데 여기서 인연이려니 하며 방관하고 살았다라면 결국 정도를 벗어난 외도를 걷게 되어 우환 질병 속에 하루하루 불평만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상반기49일 불공기간에는 진호국가불공도 필히 병행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라가 편치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교도들이 용맹정진으로 진호국가 불공을 하는 힘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부유한 기업가들이 유능한 기술자들을 데려와 온갖 공장을 만들어 현실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복 공장을 세웠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 종조님께서는 거대한 복 공장을 세웠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켜 복을 지을 수 있게, 진심이 일어날 때 환희심을 일으켜서 복을 지을 수 있게, 치심으로 어리석은 중생이 될 때 지혜를 밝혀 복을 지을 수 있는 복 공장을 만드셨습니다. 총지종 교도들은 마음수련 뿐 아니라, 능력껏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복을 지을 수 있는 공장에 다닌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기를 제에 부모에게 책임 있다’는 말씀을 화두로 불공에 임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언제나 정도를 걷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법신부처님의 명훈가피로 인해 말입니다. 상반기 49일간의 용맹정진 불공공덕으로 평안한 나라에서 큰 인물 된 자녀와 함께 행복 가득하시길 서원합니다. 🙏

아름다운 사람들

지현
자석사 전수

우리, 꼭 10년 전에 만났었지요.
 감나무와 대추나무, 앵두나무...
 그 해 심은 라일락은 어느새 부쩍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수선화, 금낭화, 복수초 등 등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리던 마당 한 어귀에서 조잘대던 꽃들은
 올 봄에도 지천으로 피겠지요.
 찰라눈 같은 햇살 가볍게 훑날리고
 사랑일 때마다 마음 간절이던 바람
 그 모든 설렘들이 모여 어느덧 10년이란 두께를 쌓았더군요.
 그러는 동안 당신들의 주름은 더 깊게 패이고
 허리는 더 굽어 버렸지만
 하회탈 같은 당신들의 웃음은 더 해맑아졌습니다.
 당신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굽은 허리보다 마음을 더 낮추고
 아이보다 순수한 목소리로 세상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당신들과 함께 한 세월이
 내게도 아름다웠노라고,
 가슴 참 따뜻했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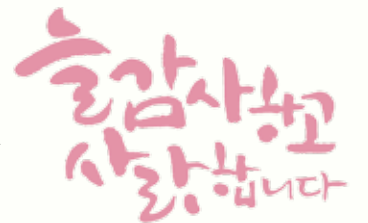


떠나오고 나서야 마음 깊이 전합니다.
 다만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우리, 이제 만났습니다.
 옛사랑을 만난 듯 설렘과 두려움이 엇갈리는 마음이지만
 꼭 만나야 될 인연이었는지 모릅니다.
 입안에 굴리기만 해도 물결 출렁이던, 바다를 그리워하던 한 사람이
 바다를 품은 곳에 사는 당신들을 만났으니
 어쩌면 기약된 약속인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겨울에도 소나무의 푸르름이 선명하게
 곳곳이 도량을 지키고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 빛깔이라고 여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오래 간직해야 할 빛이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을 만나 더 아름다운 시간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만나 아름다운 시간을 살았노라고 말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감사 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또 감사합니다. ♪



내게 희망을 보여 줘

- 관음죽(觀音竹, Bamboo palm)

이태용

원예 교육가



✿ 복을 부르는 식물

‘관음’이란 단어 때문이지 저는 관음죽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절, 개심사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관음죽이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건만, 세심동으로 시작하는 고즈넉한 산길 어디에선가 관음죽이 우리 중생들을 맞이할 것만 같습니다.

관음죽은 이름에 ‘죽’자가 있어서 대나무로 오해하기 쉽지만 대나무는 아닙니다. 대나무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죽’자가 붙었을 뿐 야자와 식물입니다. 중국 남부 지방이 고향이며, 일본의 오키나와 지방으로 전해져 관음산이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음죽은 대개의 관엽식물이 열대우림의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데 반해 유난히 동양적인 느낌을 전해 줍니다. 이는 관음죽의 고향이 중국인 탓도 있겠지만, 전체 모양에서 느껴지는 차분함과 관음죽이란 이름이 주는 분위기가 단단히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음죽만의 독특한 이미지 덕분일까요? 관음죽은 관엽식물 가운데에서도 꽤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새로 가게를 열거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축하용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관음죽이 동양적 의미에서 복을 부르는 식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관세음보살과 늘씬한 아가씨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식물 ‘관음죽’은 집 안 어디에 두어야 복을 많이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야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안과 밖이 연결되는 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개 현관은 식물이 자라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기온 차가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관음죽은 이런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해도 투정을 부리는 일이 없으며, 햇빛을 좀 못 쬔더라도 며칠에 한 번 정도 바깥 그늘에 놓아 주면 따뜻한 햇볕과 솔솔 부는 바람을 느끼며 안분지족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베푸는 대자대비의 신심, 관음죽은 바로 그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심이 넘치는 관음죽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불교 문화권인 동양에서야 ‘관음’이란 단어가 익숙하지만,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니까요.

서양에서는 관음죽을 ‘Bamboo palm’이나 ‘Slender lady palm’이라 부릅니다. 대나무처럼 생긴 야자, 날씬한 아가씨 같은 야자라는 뜻이지요. 분명 같은 식물이지만 한쪽에서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늘씬한 아가씨를 떠올린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을 따름입니다.

🌿 희망? 마음 먹기 나름

똑같은 사물이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과 물이 반이나 남았다는 사람의 차이지요. 거창한 종교의 교리와 절대자를 찾지 않더라도 집 안에 놓인 관음죽 한 그루에서 가족 모두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일에 정신이 없는 아빠, 엄마, 공부하는 아이들, 심지어 부엌 구석에서 사람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 바퀴벌레와 개미까지도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관음죽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있는 관음죽은 그저 작은 식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인자한 금동관세음보살이 살고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희망의 미소를 던지고 계시지 모릅니다. 🌱

- 『식물 읽어주는 아빠』



우리에겐 싫어할 이유와 권리가 있다2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강요된 화해는 나쁘다

여우에게도 잘못은 있다. 여우의 진짜 잘못은 어설픈 화해를 시도한 것이다. 화해가 나쁘냐고? 어떤 경우, 화해는 나쁘다.

첫째, 화해할 이유가 없는 사이끼리 강요된 화해는 나쁘다. 화해를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이좋을 이유가 없는 사이끼리 사이좋으라고 하는 것은 살짝 변장한 폭력이다.



여우와 두루미가 꼭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가? 여우와 두루미가 왜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가? 그렇게 상대방이 먹을 밥 그릇 모양새까지 머리 아프게 따져 보지 않아도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꼭 여우와 두루미가 친구가 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상사를 고발한 여직원은 여지없이 화해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얼굴 맞대고 지내야 하는 직장 상사이니 너그럽게 이해하고 화해하라고 한다. 가해자는 사과를 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화해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좋게 넘어가자고 화해를 종용하던 주변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가? 이것은 정말 화해일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그것도 용인 할 수 없는 수준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어 주지 않은 직장 동료들에 대한 실망,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좌절, 게다가 ‘알고 보니 독한 여자’라는 주변의 곱지 못한

시선……. 그는 이중으로 상처 받는다. 선부른 화해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다.

화해를 통해 오히려 가해자는 당당해진다. 이미 그는 용서를 받았으니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네가 덤벼 봤자 그 정도지’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면, 또 다른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들은 사이 좋게 지낼 이유가 없다. 폭력이 가져오는 나쁜 결말을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폭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과 화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는 싫어할 이유가 충분한 누군가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화해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우리의 관념이 때로 누군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시킨다.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욕망인가. 또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도 있다

둘째, 화해할 수 없는 상황,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모하는 화해는 나쁘다. 이럴 때 어설픈 제3의 길이 등장한다. 제3의 길을 걷

는 사람은 중립을 표방하여 화해의 전령사가 된다.

공자와 제자가 나눈 대화를 보자. “마을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누구든 누군가의 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여우 편도 아니고 두루미 편도 아닌 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독립을 위해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졌던 조선 청년 윤봉길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몽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을 하여 노동권 실종의 현실을 고발한 전태일을 어떤 자본가가 좋아할 수 있겠는가. 윤봉길과 전태일의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화해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도척이 바위

보현

실보사 전수



옛날 백제 때 공주 근처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집 저집 문전걸식하며 자란 탓인지 청년이 되어서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걸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격 또한 게으르고 온순하지 못하여 구걸을 하면서도 온갖 횡포를 부리니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늦잠을 자고 난 뒤 밥 얻으러 가는 일마저 귀찮아 옛저녁에 구걸해온 밥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노승이 와서 시주를 청했습니다. 욕심많은 청년은 자신 또한 배고픔을 겪고 있

으면서도 남의 배고픈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박대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노승은 돌아서 나가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듯 읊조렸습니다. 청년이 다시 남은 밥을 먹으려 하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사라진 뒤였고 청년은 온 몸이 비틀리고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때마침 이 마을의 의원이 청년의 집 앞을 지나다가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의 집으로 들어가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평생을 의술을 인술로 삼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 많은 의원은 청년을 치료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은인인 의원을 도리어 관가에 도둑이라고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의원이 자신을 치료한다며 침을 놓고 약을 먹인 뒤 자신이 모아 둔 돈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뻔히 아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청년이 남은 약을 내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좋은 일은 한 의원은 거지가 됐고 게으름뱅이 못 된 청년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다.

청년은 좋은 집으로 옮겨 거드름을 피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랫사람을 부려먹기 일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선심을 쓰는 척 돈을 빌려주고 이자 돈을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 가산을 빼앗아 오는 등 갈수록 심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부와 힘을 가진 청년은 이웃마을의 이생원집 딸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이생원을 찾아가 선뜻 선심

을 베풀었습니다. 이웃 마을에까지 평이 좋지 않은 청년이 찾아와 선심을 베푸니 무슨 속셈인가 싶어 사양하려 했으나 청년의 번지르르한 말과 가세가 워낙 궁색한지라 그만 쌀 1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니 청년은 빌려준 쌀 1섬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살림에다 흉년까지 들어 이생원은 갚을 길이 없어 내년으로 미루려했습니다. 이때다 싶은 청년은 빚을 없애 줄 테니 이생원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주를 구하는 염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그 소리에 청년은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가 보니 그때의 노승이었습니다. 청년은 노승을 보니 예전에 당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다시 만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청년은 흥분하여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 살기 등등하게 노승을 향해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피할 생각도 않고 태연히 염불만 외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승을 향해 높이 쳐든 청년의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다. 청년은 서서히 바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개나 돼지와 다름없는 법. 너는 네 젓값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바위로 서 있거라.”

노승은 이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 마을사람들은 이 바위를 [도척이 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몹시 악한 사람을 일러 [도척이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9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라 안을 휩쓸며 악한 짓을 한 유명한 도둑 ‘도척’에 비유하여 생긴 말입니다. 도척처럼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기 보단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동물보단 나은 인간의 삶입니다.

욕심은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욕심이 눈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을 움직이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크게 다섯가지(五欲)로 나눕니다. 수면욕,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으로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원초적 형태입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적절한 바른 마음을 내어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을 하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욕심이 주인 되지 않게 오늘도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봅시다. 🙏





지난 주말 전문대를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소식을 모르고 지냈던 93학번 친구와 동생들을 20년 만에 만났다.

그때 나를 언니라 불렀던 동생들도 겨우 한 살 어렸으니 다들 40이 훌쩍 넘은 나이로 얼굴과 체형에서도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아줌마 6명의 발칙한 1박 2일을 계획했다.

제일 먼저 결혼을 하고, 애들 키우느라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는 참 무심히도 살았다 싶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얼굴 볼 날을 정한 날부터 가슴을 답답하게 눌렀다. 실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따라왔던 통증으로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였으며 후회로 남아있었던 묵은 체증이기도 했다.

두 딸을 키우며 감동 받을 때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다투고 화해할 줄 알며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이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여행 다니고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며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지금의 나는 당연한 거지만 그때 나는 못한 걸 두 딸은 그때의 나보다 훨씬 어린나이임에도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그저 감동이었다.

두 딸들의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뚝 끊겨진 그 필름들은 그때의 어린 내가 안타깝고 그 때의 엄마를 모르는 두 딸은 20년 전의 친구들을 만나는 나보다 더 설레하며 염색을 해준다는 등, 예쁘게 입고 가라는 등 더 신나하며 만날 날을 기다렸지만 정작 나는 그 실타래를 어찌 풀어야 할지 고민도 함께 한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멀리서 얼굴을 본 순간, 반가움과 제자리에서 잘 살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20년이란 긴 시간은 어디로 간 건지 어제 본 사람들처럼 그저 편안해 새삼 놀라웠고 준비해왔던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은 꺼낼 겨를도 없었다.

모이기로 한 날 위독하신 아버지 때문에 못 올 거란 해임이는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 같이 장례식장으로 가서 얼굴을 보게 되었고, 가까운 동생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이제 우리 나이가 부모님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노라며, 빈 적 없는 서로의 부모님 건강을 염려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다짐도 했었다.

20년 만에 만난 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고 있는 해임이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해줄 수 있어 참 다행이었고, 힘든 가운데도 반갑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동생의 모습에서 이번 모임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도 내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 이순간도 가슴 한 편이 빠근해져 온다.

쫄맨한 예쁜이 캔디 닮은 동선이는 여전히 똑부러지게 살고 소방관 신랑과의 연애담부터 지금 사는 모습 이야기에 배꼽 빠지게 웃었고, 쫄맨하지만 덜 예쁜 친구 미정이는 느닷없이 찾아 온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시간 마음공부하며 열심히 책 보고 쌓은 내공 자랑에 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던 미정이의 아픈 시간에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무사히 잘 견뎌내고 활짝 웃어 보이는 얼굴이 한없이 고마웠고, 무작정 걷고 또 걸었던 내 시간들도 떠올라 열심히 걷는 것도 추천해주었다.

학교 다닐 때도 속 깊던 채이는 아이들 속도에 맞춰가며 바르게 키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토요일 차 밀리는 시간 우리를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동남내기 신랑에게는 여우짓 좀 했다는 자랑하는 얼굴에는 절대 벗겨지지 않을 콩각지에 싸인 행복이 그대로 보여 나도 덩달아 해맑게 웃었다. 학교 다닐 적 소심쟁이 혜영이는 웃음소리 커지고 3살짜리 아들 두고도 모임에 올 수 있는 씩씩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음, 동생들이나 친구가 보는 나는 예쁜 두 딸 바르게 잘 커 주고, 방송대 공부할 열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90% 성공한 인생이란다. 모두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북한군도 무서워 못 내려온다는 중2병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나이인지라 그럴 만도 하다. 각자 연락되는 그 때 친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새벽 5시까지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들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사진 속 유난히 촌스러운 옷을 입었던 해임이는 제일 부자 사모님이 되어 서울에서 살아 우리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지금 봐도 뒤쳐지지 않을 세련된 옷과 모자 주인공인 나는 그 때보다 더 날씬하고 여전히 옷 잘 입고 다닌다는 칭찬에 으쓱해하기도 했다.

전화 목소리나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차분해져 놀랐다고 한다. 그때의 나는 목소리 크고 아주 씩씩해서 남자들이랑 같이 족구도 하며 지내서 같이 다니는 친구와 동생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때의 내가 더 나다우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달라는 부탁도 받았으니 더 씩씩하게 살아볼 테다.

긴 밤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고 같이 늙어가는 모습도 보자며 정기적으로 얼굴 볼 날을 정해두고 왔다. 다들 바쁘고 그 중에 내가 제일 바쁠 테지만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선해 볼 참이다. 원래 내가 리더였으니.

집에 돌아와 앨범에 꽂혀 있는 그 시절 사진들을 오래도록 들여다본다. 언젠가 읽었던 공선옥 작가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책을 읽을 때 생각해 본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애들 키우며 바쁘게 보낸 그 즈음이었는데, 이제보니 사진 속 멧진 배경보다 활짝 웃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제일 예뻤을 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시절 함께 한 친구와 동생들이 있어 가장 예쁠 수 있었고, 따뜻한 가슴을 간직한 채 잘 살아준 친구와 동생들과의 오랜 인연의 고마움에 더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해본다.

그대의 한숨과 함께

범일
벽룡사 주교



어떤 굉장한 부자가 자기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수행자를 초청했다.
부자는 진귀한 공예품들과 보물들, 온갖 값진 물건들이
가득한 방을 두루두루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 뒤에 수행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수행자는 발에 힘을 주어 물구나무를 서며 말하였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갖 보물이 가득한 육중한 집의 무게를 견디다니,
땅은 참으로 강하고도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대단한 땅도 한순간 꺼져 버릴 수 있다.
그대의 한숨과 함께.

-「동냥그릇」



한 방문객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다.

“스님. 조금 예의 없는 질문 하나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스님은 채식만 하신다고 알려졌는데, 혼자 계실 때는 고기를 먹지 않
으십니까? 먹기도 하시죠?”

스님은 방문객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반문하여 물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안전띠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
까? 아니면, 경찰이 보고 있으니 하는 겁니까?”

“안전띠는 자신을 위해 매는 것이므로 경찰이 있든 없든 안전띠를 매
야합니다.”

조금 후 방문객이 소리쳤다.

“오 -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이프스토리」

삼귀의

三 歸 依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三 석-삼 歸 돌아갈-귀 依 의지할-의

가상화폐의 광풍으로 떠들썩하다. 하루아침에 웃고 운다. 이는 돈에 귀의처를 둔 중생들의 모습이다. 인간에게서 나온 돈이 오히려 신처럼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세상에서 돈의 힘을 얻으려고 허덕거린다. 그러한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

하지만 돈은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탐욕이 형상화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돈에 귀의처를 둔 중생은 결국 탐욕에 귀의처를 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는 깊고도 끝없는 윤회의 바다속에서 헤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진정 구원이 될 수 있는 귀의처인가? 그것은 더 이상 윤회의 바다속에서 헤매지 않는 존재여야 하며, 헤매임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까닭은 부처님께는 不共(함께 할 수 없는, 다시 없는)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좋은 방편으로 장애를 조복할 뿐, 그 장애의 세력에서 도피하지 않으며¹⁾, 약간의 장애를 여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를 완전히 다 여의도록 하신다.²⁾

그리고 모든 고통과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완전히 행복받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신다. 곧 장애나 고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연³⁾들이 되풀이 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분이 부처님인 것³⁾이다.

이렇듯 진정한 귀의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는 세 가지 보배이며, 불교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삼보^{三寶}에 귀의함으로써 진리의 길에 들겠다는 서원에서 시작된다.

초기경전에서도 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귀의를 받아 지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재가신도가 됩니까? 마하나마여,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할 때 재가신도가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재가신도가 계를 지킵니까? 마하나마여, 재가신도는 생멸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샅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의다. 이렇게 재가신도는 계를 지킨다.”

(양곳따라니까야 마하나마 경)

위와 같이 재가 신자가 되고 난 후에야 5계를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수계에 있어 먼저 삼귀의를 서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1) 선사善捨 2)원만사圓滿捨 3)불퇴전사不退轉捨

무진장

無盡藏

無 없을 - 무 | 藏 다할 - 진 | 藏 감출 - 장

- ①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아 다함이 없는 상태
- ② 다함없는 무한자비 보시행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의 명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상 언어속의 불교 용어가 있다. ‘무진장^{無盡藏}’이다. 양적 질적으로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할 때 “무진장하다”고 말한다. “재물이 무진장 많다”는 말은 물질의 양적인 무한량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진장 넓다”는 표현은 덕성^{德性}의 광대무변을 비유한 말이다.

「불교대사전」에서 단어 ‘무진장’을 찾아보면 ‘무진’과 ‘장’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진^{無盡}이란 덕이 넓어서 무궁함을 뜻하고, 무진을 포함한 것 곧 창고를 장^藏이라 한다”라고 정의했다. 즉,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뜻이다. 무진은 또한 잘 융화되어 서로 방해함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원융무애^{圓融無碍}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유마경」 ‘불도품’의 무진장에 대한 해석은 훨씬



사회적이다. “빈궁한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경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자비사상의 실천적 표출은 결국 보시^{布施}가 된다. 최상의 보시는 무주처^{無住處} 보시이다. 무주처 보시는 무진장한 숫자의 중생에게 무진장한 연민을 갖고 무진장 오랫동안 줘야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과학시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재난이 많았을 것임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 마다 우리 스님들과 부자들이 보여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많은 기록이 전한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절에서 실시한 장기 저리 무담보 사설금융이 곧 ‘무진장’이다. 무진재^{無盡財}, 무진장원^{無盡藏院}이라고도 불리었다.

오늘날의 무진회사는 불교의 자비심이 푸근하게 깃들여 있는 사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무진장의 자산금은 신도들이나 장안의 큰 단월주^{檀越主}가 내는 시주물로 이루어졌다. 그때 스님들은 재가 신도들이 시주한 금액을 그렇게 알뜰히 그리고 법다듬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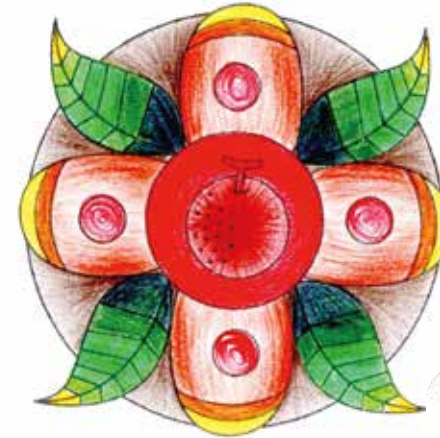
고려말 조선초 까지도 이 무진장원의 운영은 꽤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한다. 그 때처럼 무진장 주고 베푸는 사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김민정 님



▲ 울산 덕광 님



◀ 서울 관악구 임지혜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①			
②		③	
④			

세로낱말

- ①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③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가로낱말

- ① 가락을 굵게 뽑은 국수의 하나. 또는 그것을 삶아서
맑은장국에 요리한 음식
② 운동 경기에서 한 선수가 부상 또는 다른 이유로 경기를
포기할 때 상대편이 이기게 되는 일. 또는 승리
④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아 다함이 없는 상태(76P 참조)

산유유유 | <음> <음> <음> <음> <음> <음>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양숙	김종철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2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편집 후기

2월

- 오세영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맞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들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자.
항상 비어 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벚꽃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외투는 벗는 2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벌써, 1월이 지났어?

순간 다시 한번 달력을 보게 된다.

1월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이 왔네.

1월에 새롭게 시작한 일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본다.

아직도 2018년이 11개월이 남아있다.

또 다시 시작하자.



2월호



마음의 스승이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거늘

- 환당 대중사 -